

‘靑·文·촛불’ 만 내세워 유권자 관심 유도

내년 총선 출마자 ‘출마의 변’ 분석해보니

너도나도 지역발전 적임 강조 불구 구체성 모호
지역 비전 공약 없이 이미지 정치...옥석 가려야

제21대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출마 선언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정책성을 드러낼 만한 구호 없는 허울뿐인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력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 촛불 혁명으로 일궈낸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청와대 출신’임을 내세우는 등

이미지 정치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 지역 공약이 민주당 당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선거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4·15 총선 예비후보등록을 전후해 출마선언이 잇따랐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로 텃밭에서 승리를 장담하는 민주당 경선 후보자들은 공식 출사표를 알리는 출마 회견에서 대부분 ‘청와대’, ‘문재인’, ‘촛불정권’ 등을 내세워 호남 유권자들의 관심을 돌리고 있다. 대부분은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완성해야 한다”, “국정과제를 완성하고 나아가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다”는 등의 약속 또는 각오를 내놓았다. 이에 자신의 경쟁력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민심만 의식한 ‘청와대’와 ‘촛불정권’ 타이틀로 무임승차 한다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게 되면서 텃밭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견제세력이 사라진데다, 소속 지방의원들의 오만과 독선이 이어지고 있는 연장에서 현재 지역여론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친노, 친문의 정치공학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총선을 통해 정통성을 지닌 호남 대변자, 이른바 ‘뉴DJ’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명맥마저 희미해진 호남정치를 재차 복원하자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2면에 계속 /김다이지자

社 告

광주매일TV 4주년 유튜브 구독 이벤트

커피 선물 1만원권·무선 이어폰 ‘에어팟 프로’ 선물

용·복합미디어로 지역문화 창달에 앞장서 온 광주매일신문이 광주매일TV 개국 4주년을 맞아 유튜브 구독 ‘광주매일TV로 초대합니다’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12월 23일부터 2020년 2월 23일까지 두 달간 진행하며, 참여 방법은 광주매일TV 유튜브 구독 클릭 후 구독 중 화면을 캡처해 페이스 북 행사 게시 글에 댓글로 화면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친구 태그를 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격주마다 10명에게 스타박스 1만원권 선물권을 증정하며 마지막 주에는 2개월동안 참여한 모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명에게 최신 무선 이어폰 ‘에어팟 프로’ 선물이 주어진다. 위의 사항으로 참여자는 구독 정보가 공개로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모바일 참여자의 경우 프로필 이미지 클릭 →내 채널 →설정(톱니바퀴) →‘내 구독정보 모두 비공개’ 체크 해제, PC 참여자는 설정 →공개 범위 설정 →좋아요, 재생목록, 구독 내역 →‘내 구독정보 모두 비공개’ 체크 해제를 해야 한다. 구독정보가 비공개 설정 시 추첨이 불가능하다. 당첨자는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와 유튜브 첫 페이지에 명단을 게재할 예정이다. 문의 062)650-2015, 2026



더 가까워진 영광-무안 18일 오후 영광 칠산타워 광장에서 열린 무안 해제-영광 연상을 잇는 ‘칠산대교 개통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준성 영광군수, 김산 무안군수,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 김규현 익산국도관리청장 등 내빈들이 준공 알림버튼을 누르고 있다. /전남도제공

예타 면제사업 지역 건설사 참여 길 열렸다

전남도, ‘지역의무공동도급’ 건의...국토부 수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등에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20개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지역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의해온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적용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전남에선 신안 압해와 해남 화원, 여수 화태와 백야를 잇는 서남해안관광벨트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에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지난 10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에 국가계약법 규정상 실제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가 어려운 점을 파악, 과거 혁신도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정부에서 지역 중소기업이 20% 이상 참여토록 한 사례를 들어 정부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건의해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장관에게 도시사

친필 건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전 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토록 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국토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발주되는 이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날 당정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 중 연구·개발(R&D) 사업 3개(3조1천억원)를 제외한 20개 사업(21조원)에 대

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도, 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13개 사업(9조8천억원)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제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전국적으로 사업 효과를 미치는 광역교통망 7개 사업(11조3천억원)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가산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김재정기자

광주 첨단·비아 주민 숙원 고속도 상행선 간이정류장 설치 추진

15년 미해결 현안...도로공사 등 협의

광주 광산구 첨단·비아 일대 주민들의 숙원인 고속도로 간이정류장 설치가 추진된다. 시는 18일 광산구 첨단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13회 현장 경청의 날’을 열어 지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행선 고속버스 정류장 설치 방안을 모색했다. 그동안 첨단·비아동 주민들은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에 내려올 때 비아 간이정류장을 이용했지만, 반대로 상행선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광전동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곳 주민들은 2004년부터 간이정류장을 신설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일정규모의 부지 확보와 안전시설 설치 등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다. 이용섭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동광주 일대 고속도로 확장 구간을 포함해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물색해 간이정류장이 설치되도록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상행선 간이정류소가 설치되면 첨단, 비아 주민 40여만명이 수도권, 충청, 전북으로 이동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갈수록 극심해지는 도심교통 체증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종민기자

호남 최초 스마트폰 방송국 광주매일TV

[파워인터뷰] 박시중 문재인정부 국정상황실 전 선임행정관

[파워인터뷰] 김희재 전 광주·의정부 검사장 (1·2편)

2019 통일기원 송년음악회

▶ m.kjdaily.tv ▶ m.kjdaily.com PC·스마트폰·유튜브·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고·시청문의 062)650-2024

**에너지를 심어
자연을 가꿉니다**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발전은
한 대(2MW)당 30년생 소나무
약 30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보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일이
더이상 자연을 해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신·재생 에너지 사용으로
자연을 가꿔 나갈 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우리나라는 국제 컨퍼런스 [2019 세계재생에너지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주최국으로, 재생에너지의 글로벌 확산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본 광고는[2019년 에너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대수님의 작품을 재구성하였습니다.